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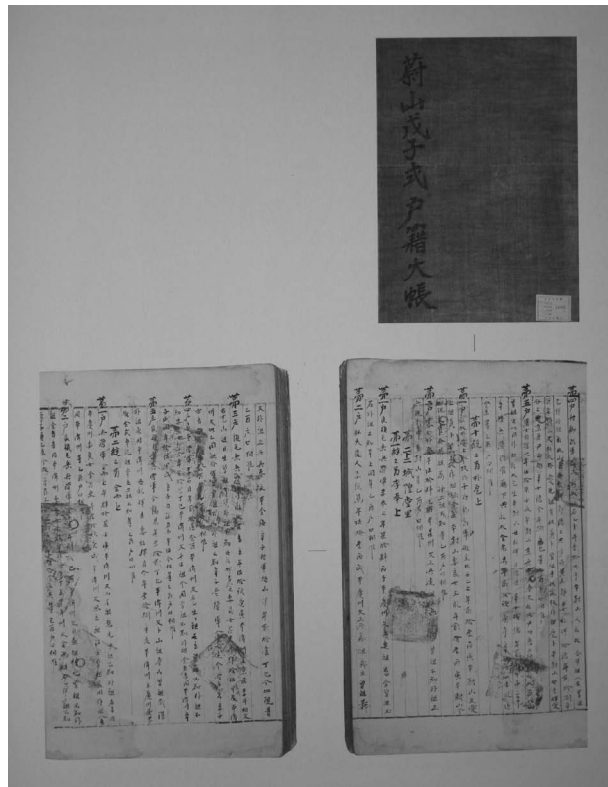
## 조선시대 제주 해녀 울산으로 간 까닭

고광민(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원)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2016년 울산대곡박물관 특별전 도록의 이름이다. 특별전 도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울산지역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거주했다. 이들은 왜 울산에 왔던 것일까? 울산의 여러 자료에 이들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두모악<sup>51)</sup>은 조선시대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와서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었다.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가운데 두모악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모악은 1609년(광해군 1), 1672년(현종 13), 1684년(숙종 31), 1708년(숙종 34) 호적대장에 기록되어 있다. 1609년 기유식(己酉式) 호적대장은 두모악이 11호 정도 확인된다. 남면(南面) 대대여리(大代如里) 2호, 남면 온양리(溫陽里) 9호였다. 1672년 호적대장에는 부내면 제10 백련암리(白蓮巖里)에 187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백련암리는 현재 울산 북구 연암동 일원에 해당된다. 1684년에는 부내면 제21 성황당리(城隍堂里)에 197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성황당리는 현재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해당된다. 1705년에는 부내면 제23 성황리(城隍里)에 192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1708년 호적대장에는 부내면 제22 성황당리(城隍堂里)에 185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사진1).



[사진1] 울산 무자식(戊子式) 호적대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14985). 1708년, 울산 부내면 제22 성황당리에 두모악(제주도) 185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온다

51) 두모악(頭毛岳)은 달리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라산의 이칭으로 울산 등지 해변에서 잠수하며 살아가는 제주인을 지칭한다(필자 고광민의 주).

울산부 호적대장을 통해 두모약은 18세기까지 육지인과 격리된 가운데 그들 나름의 특수 부락을 이루어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모약은 대체로 천인(賤人)으로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그 나름의 부락을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 혼인을 했다. 두모약은 육지인이 꺼리는 존재였고, 관청으로부터 특정한 역을 부과 받았고, 그 주거와 출입도 통제되었다.

조선시대, 제주도 사람 ‘두모약’들은 왜 울산으로 갔을까. 친한 대접을 받으면서 왜 울산에서 살았을까. 울산과 그 주변 지역 어촌마을 사람들의 미역발 생태와 제주 해녀들의 관계에서 그 생태적 배경을 추적하여 보고자 한다.

### [사례1]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조성근씨(1937년생, 남)

이 마을 사람들은 미역발을 ‘미역돌’이라고 한다. 이 마을 미역돌은 개인 소유다. 한 가호에서 3, 4개의 미역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조씨는 6남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미역돌을 물려받지 못했다. 30세 때 우씨 소유의 미역돌을 샀다. 미역돌 이름은 ‘아랫거랑밑’이었다.

음력 10월 중에 미역돌의 잡초를 땀다. 조간대 잡초는 여자들이 호맹이로 땀고 수심 2m까지의 잡초는 남자들이 썰게로 땀다(사진2). 수심 2m 이하의 미역돌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잠수하여 호맹이로 땀다(사진3).



[사진2] 썰게와 돌매기(2016년 10월 17일, 경북 울진군 매화면 오산2리) 촬영 이해연  
이 마을 박선동씨(1935년생, 남)가 ‘썰게’로 돌매기를 하고 있다



[사진3] 기세호맹이(길이 25.2cm, 날 길이 5.8cm, 날 폭 6.4cm)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서 제주도 출신 해녀 고씨(1942년생, 여)가 쓰던 것이다

음력 2월에 미역을 뺐다. 조간대 미역은 여자들이 낮으로 뺐고, 수심 2m까지의 미역은 남자들이 설낮으로 뺐다. 수심 2m 이하의 미역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잠수하여 낮으로 뺐다.

조간대에서 수심 2m까지의 미역들을 '썰게자리'라고 하는데, 썰게자리 미역은 일조량이 풍부하니 미역이 꼬들꼬들하고 폭이 좁았다. 썰게자리 미역은 비쌌다. 수심 2m 이하의 미역들을 '호맹이자리'라고 하는데, 호맹이자리 미역은 일조량이 부족하니 미역이 무르고 폭이 넓다. 호맹이자리 미역은 값이 낮다.

#### [사례2]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장만조씨(1939년생, 남)

이 마을 소유 미역밭은 남쪽 '보밀'부터 북쪽 '선골'까지 9개(지경, 돛방, 물목, 영근돌, 생이돌, 큰불, 끝돌, 선돌, 노랑돌)로 나누어져 있었다.

미역돌마다 괄주들을 배정시켰다. 이를 '돌제비'라고 하였다. 미역돌 돌제비를 끝내고 나서 다시 돌제비로 하나의 미역밭을 가호의 숫자만큼 나누었다. 그러니 미역돌마다 으뜸을 따로 돌 필요가 없었다.

음력 9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남정네들이 배를 타고 '썰게'라는 도구로 수심 2m까지 미역밭의 잡초를 제거하였다. 이를 '돌 맨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심 3~4m의 미역밭 잡초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을 고용하여 뺐다. 해녀들의 제초도구는 '기세호맹이'였다(도3). 현재 해녀들의 하루 돌매기 품삯은 15만원이다.

음력 2월 중에 미역을 뺐다. 미역밭 꼭대기의 것은 여자들이 낮으로 뺐고, 수심 2m까지는

남자들이 설날으로 댔다. 수심 2m 이하 미역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잠수하여 낚으로 댔다. 해녀는 그날 따낸 미역 중에서 10분의 1을 품삯으로 받았다. 미역은 수심이 깊어갈수록 가치가 떨어졌다.

### [사례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최정숙씨(1947년생, 여)

이 마을 소유 미역밭은 남쪽 ‘안섭밭’부터 북쪽 ‘납닥돌’까지 5개(앞바당, 대장밭, 여담네밭 밑에, 솔안, 독바우)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음력 8월 중에 미역돌을 배정하였다. 이를 ‘제비 뽑는다’고 하였다. 스스로 “곽주(藪主)”라고 하였다. 곽주는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곽주들은 사공 한 사람을 선임하였다. 사공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였다. 곽주들은 사공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잡초도 제거하고 미역도 댔다.

음력 9, 10월 중에 미역돌에 붙은 잡초를 제거하였다. 이를 ‘몰일’이라고 하였다. ‘몰’은 모자 반과의 해조류를 말한다. 몰일은 몰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여성 곽주들이 ‘씨레’라는 도구로 잡초를 제거하였다. 잡초를 제거한 미역돌에는 미역이 그만큼 많이 붙어 자랐다.

정월과 음력 2월에 미역을 댔다. 보통 곽주들은 낚으로 미역을 댔고, ‘설날꾼’들은 물속의 미역을 댔다. 미역을 배에 싣고 와서 여러 개의 미역더미를 만들어놓고 분배하였다. 이를 ‘짓가리’라고 하였다. 사공은 곽주마다 신발 한 짝씩 모아 바구니에 담았다. 미역더미마다 신발을 올려 놓았다. 자기 신발이 있는 미역더미를 신발 주인이 차지하였다. 이를 ‘원짓’이라고 하였다. 사공과 배의 몫으로 미역 한 더미를 차지하였다. 이를 ‘사공짓’이라고 하였다. 설날꾼 3명의 몫으로 미역더미 하나를 받았다. 이를 ‘설날꾼짓’이라고 하였다. 설날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마을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설날 기능을 보유했다.

설날꾼이 따내지 못하는 물속의 미역은 제주도 해녀들이 따냈다. 곽주들과 해녀들은 서로 6 : 4 비율로 나누었다. 곽주들은 6등분의 미역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고, 해녀들은 4등분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다.

### [사례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이동마을 방현호씨(1936년생, 남)

이 마을 소유 미역밭은 남쪽 ‘줄바위’에서 북쪽 ‘양물채’까지 4개(검등돌, 방돌, 악진바위, 양물채)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역밭을 ‘미역돌’이라고 하였고 음력 10월 중에 미역돌을 분배하였다. 이를 ‘미역돌 가르다’고 했다. 1970년대 무렵, 이 마을은 50여 가호로 구성되었다. 종이쪽지에 미역돌 이름을 적어 마당에 펼쳐 놓고 가호마다 한 사람씩 종이쪽지 한 장씩 잡으면 정해진 미역돌의 1년간 ‘곽주(藪主)’가 되었다. 곽주들은 미역돌마다 대표 한 사람을 선임하였다. 이를 ‘모개비’라고 하였다. 모개비는 으뜸에 해당되는 말이었다. 곽주들은 모개비의 지시에 따랐다.

동지(양력 12월 22일경) 무렵, 미역돌에 붙은 잡초를 제거하였다. 이를 ‘썰게질한다’고 하였다. 모개비가 “썰게질 하러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곽주마다 ‘썰게’를 들고 나왔다. 썰

게는 팽이를 편 모양의 쇠붙이를 자루에 박아 만든 것이다.

미역돌 잡초는 수심이 깊은 곳보다 얕은 곳에 많았다. 잡초의 종류는 대왕물, 무가사리[石草], 우무가사리, 진도바리, 도박 등이었다. 양손으로 썰게를 잡고 미역돌에 붙은 잡초를 제거하였다. 썰게질은 남녀가 같이 했다. 잡초를 제거한 미역돌에는 그만큼 미역이 많이 붙어 자랐다.

미역은 수심에 따라 '돌미역'과 '물미역'으로 분류했다. 수심 1m까지의 미역을 돌미역, 그 이하의 미역을 물미역이라고 하였다. 음력 2월부터 돌미역은 곽주들이 모두 출어(出漁)하여 낮이나 설날으로 땀다. 모개비는 미역더미('패기'라고 함)를 띄엄띄엄 만들어놓았다. 가호마다 각각 1깃씩 차지하였다. 이를 '원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개비는 구성원 몫의 1깃과 함께 모개비 몫으로도 1깃을 더 차지하였다. 이를 '모개비짓'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미역 깃을 나누는 것을 '짓가리'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미역을 땀다. 채취 대상의 물미역은 수심 2m 정도까지였다. 미역돌마다 사공 한 사람이 배를 가지고 나왔다. 배에 몇 사람의 아낙네를 태웠다. 이때의 아낙네를 '설날꾼'이라고 하였다. 설날꾼은 물미역을 따는 여성 기능인이었다. 설날을 물속에 드리우고 한쪽 발로 설날을 걸어 휘돌리며 물미역을 땀다. 따낸 물미역을 여러 개를 묶어서 배 가까운 곳으로 던졌다. 사공은 갈퀴 따위로 물미역 더미를 건져 올렸다. 그리고 미역을 나누었다. 가호마다 1깃, 사공 한 사람과 배 1척 몫으로 1깃, 그리고 설날꾼 3명 몫으로 1깃을 차지하였다. 설날꾼들끼리 각각 배당의 깃을 서로 나누었다.

수심 2m 이하의 물미역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따냈다. 곽주와 해녀들은 6 : 4의 비율로 나누었다. 곽주들은 6등분의 미역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고, 해녀들은 4등분의 미역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은 이 마을 갯밭에 있는 성계, 해삼, 전복, 소라, 우무가사리 따위는 자유롭게 땀다.

#### [사례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고씨(1942년생, 여)

고씨는 제주도 출신 해녀다. 29세가 되는 해에 이 마을로 와서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꾸렸다. 31세가 되는 해에 이 마을 남자와 혼인(婚姻)하였다. 이 마을 미역돌은 여러 곽주들이 1년 주기로 소유했다. 미역돌에 붙은 수심 2m까지 미역을 '설날미역', 그 이하의 미역을 '물미역'이라고 하였다. 고씨는 해마다 음력 10월 중에 미역돌 물미역 밭의 잡초를 땀고, 그 값으로 품삯을 받았다. 잡초를 매는 일을 '돌맨다', 그리고 그 값을 '돌맨값'이라고 하였다. 돌맨값은 그때그때 달랐다.

정월 보름 이전, 고씨는 미역돌 주변에 자라는 참몰을 따고 고씨가 딴 참몰의 3분의 1 정도를 품삯으로 받았다. 음력 2월, 설날미역은 곽주들 중에서 여성 설날꾼들이 땀고, 물미역은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땀다. 이때마다 고씨가 딴 물미역 중의 3분의 1 정도를 품삯으로 받았다.

미역돌 곽주들은 미역과 참몰만 소유하였고, 그 이외 해산물을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자유롭게 딸 수 있었다. 음력 5월부터 8월까지 우무가사리를 땀다. 음력 9월부터 10월까지 양장구와 성계, 그리고 도박을 땀다. 동짓달과 선달에는 해삼을 잡았다. 해삼 중에는 더러 흥해삼

도 있었다.

울산과 그 주변 갯마을 사람들은 미역돌을 공동 또는 집단으로 소유하였다. 사례1의 마을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사례2, 3, 4의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소유했다. 미역돌 수심 2m까지, 소위 ‘설낫미역밭’은 스스로 잡초도 맷고 미역도 따다.

울산의 사례에서 사례2 태화강 북쪽 마을의 설낫꾼은 남자였고, 사례3 태화강 남쪽 마을의 설낫꾼은 여자였다.

미역돌 수심 2m 이하, 소위 ‘물미역밭’의 잡초 매기와 미역 따기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의 몫이었다. 제주도 출신 해녀들은 그 값으로 일정한 품삯을 받았다. 참물 이외의 해산물은 제주도 해녀들이 자유롭게 따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제주 해녀들이 울산과 그 주변 갯마을로 샅터를 옮겨갔던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진4] 제주도 출신 해녀들의 물질(2016년 10월 14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 abstract

## Why did Jeju Haenyeo go to Ulsan during the Joseon Dynasty

Kwang-Min Ko

Institution for Marine &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Joseon era, Ulsan (a city located on the southeast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became home to a large population from Jeju (the largest island off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could be the push factors of their migration? Interestingly, many historic documents found in the city of Ulsan provide records on the existence of migrants from Jeju. The term *Dumoak* from the Joseon period referred to those Jeju natives that left the island of Jeju and settled on Korea's mainland. Being a nickname for Hallasan (the mountain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Jeju Island), *Dumoak* was used to refer to the native people of Jeju residing in such places as Ulsan that made their living by diving in the coastal seas. Notably, *The Census Register for the Ulsan Region, Gyeongsang Province* (from the Joseon dynasty), jotted down the details of *Dumoak*. The state-recorded family register implies that the people called *Dumoak* had been isolated from the original settlers in the mainland area by the 18th century, creating a unique village of their own. In general, *Dumoak* were classified as Cheonin (the term that referred to lower class people in the Joseon era). As earlier mentioned, they resided in the villages they had created for themselves and married within their community. They were shunned by the original settlers on the mainland, took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specialized labor for the nation, and further, had restricted options for residence in and entrance to towns other than their own. Why did *Dumoak* have to move to Ulsan and be treated as people of lower class in the Joseon period? The answers may lie in both the ecology related to the so-called 'field of sea mustard' in Ulsan and the neighboring fishing villag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of those villages and the haenyeo who migrated from Jeju. In detail, Jeju haenyeo were responsible for removing weeds and collecting sea mustard in the sea mustard fields in the near waters. The women divers from Jeju were paid for the afore-mentioned labor. Additionally, they were allowed to collect as much seafood as they wanted, to earn a living for themselves. This ecological background offers explanation into the reasons why Jeju haenyeo relocated their livelihood to Ulsan and the neighboring coastal villages in the Joseon era.